국내
마감시황

2026.2.10

리서치센터 리포트
바로가기

특별한 모멘텀 없이 혼조세

이번 주 미국 CPI 및 고용보고서 발표 앞두고 관망세

금융, 소비재, 유통 업종 반등

주요 지표 일간 변동

KOSPI	KOSDAQ	KOSPI200
5,301.69pt (+0.07%)	1,115.20pt (-1.10%)	780.76pt (-0.02%)
달러-원 환율	**韓 10년물 국채 금리**	**S&P500 선물**
1,460.90 원 (+3.2 원)	3.7210% (-3.3bp)	6,975.25pt (-0.11%)

참고: 발간 시각 기준
자료: KRX

주요 수급 동향

	KOSPI	KOSDAQ	KOSPI200 선물
개인	-8,728 억	+3,241 억	+1,545 억
외국인	+1,421 억	-2,177 억	+7,589 억
기관	+5,642 억	-809 억	-9,030 억

참고: 발간 시각 기준
자료: KRX

KEY DRIVER

- 금일 국내 증시는 뚜렷한 모멘텀 없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. 실적 시즌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, 이번 주 미국 고용 및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확산됐습니다. 코스피에서는 호실적 및 주주환원 기대감이 유효한 금융주와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소비재, 유통주 등으로 순환매가 나타났습니다. 반면 코스닥지수는 외국인 순매도에 1% 이상 하락했습니다. 이날 KOSPI는 0.07% 올랐고, KOSDAQ은 1.10% 내렸습니다.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22.8조원, KOSDAQ은 약 12.0조원을 기록했습니다.(KRX 기준)
- 외국인은 KOSPI를 천억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. 외국인은 KOSPI에서 화학과 전기/전자 업종을 매수했고, 운송장비/부품과 금융 업종을 매도했습니다. 기관도 KOSPI를 5천억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. 기관은 전기/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수했고, 운송장비/부품과 기계/장비 업종을 매도했습니다.
- 업종별로 살펴보면,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기대에 유통주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. 그 외, 건설, 자동차 부품주가 올랐습니다. 반면, 전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자 방산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. 최근 주가 상승폭이 컸던 반도체 소부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습니다. 그 외, 조선, 원전주가 내렸습니다.
- 주요 종목 중에선 롯데쇼핑(+14.88%), CJ(+5.19%), 신한지주(+4.82%)가 올랐고, 원익IPS(-10.93%), 한화에어로스페이스(-3.94%), SK하이닉스(-1.24%)가 내렸습니다.

Compliance Note

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.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경, 대여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.

삼성증권